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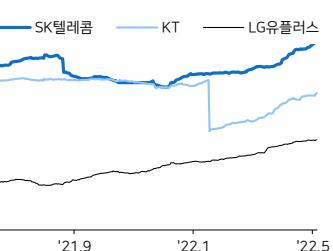
2022.5.16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1.5	-3.4	-4.6	-13.1	10.2	9.2	1.0	0.9	2.0	2.2	
통신업종	4.1	2.3	10.2	7.9	9.6	8.5	0.8	0.7	5.4	5.8	
SK텔레콤	5.5	2.5	11.3	14.2	12.5	10.8	1.1	1.0	5.6	6.0	
KT	5.6	6.8	17.3	19.4	8.1	7.3	0.6	0.6	5.6	6.0	
LG유플러스	-0.7	-3.9	2.6	-2.8	7.8	7.1	0.7	0.7	4.8	5.3	
AT&T	-0.9	1.5	8.0	6.0	7.7	7.9	0.8	0.8	6.8	6.1	
Verizon	-0.2	-10.5	-9.7	-8.1	8.9	8.7	2.1	1.9	5.4	5.5	
T-Mobile	-0.4	-5.0	-0.6	7.3	44.2	20.2	2.2	2.1	0.0	0.0	
NTT	-2.0	0.8	15.1	14.8	11.9	11.1	1.7	1.5	3.1	3.3	
KDDI	-1.4	0.8	14.2	23.2	14.3	13.6	1.9	1.8	3.0	3.1	
Softbank	-2.5	-11.5	-2.3	-28.0	16.4	11.9	0.7	0.7	0.9	0.9	
China Mobile	-0.8	-7.7	-6.4	8.1	7.6	7.0	0.7	0.7	8.2	9.4	
China Unicom	-1.6	-4.4	-12.5	-8.2	6.2	5.5	0.3	0.3	7.8	9.2	
China Telecom	-3.1	-11.2	-7.7	5.3	7.7	6.7	0.5	0.5	8.5	10.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8.4% (+0.6%p WoW, +1.6%p MoM)

KT 42.8% (+0.3%p WoW, +0.9%p MoM)

LGU+ 37.7% (+0.0%p WoW, +0.4%p MoM)

통신3사,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5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와 대비 +5.6%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외국인 지분율 SK텔레콤 48.4%, KT 42.8%로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지속 KT와 SKT 1Q22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상회, LGU+는 부합. KT는 일화성 이익 제외하더라도 5천억원대 이익 기록 국내 기관은 KT, SKT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은 통신3사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SKT 외국인 지분율 48.4%로 5월 MSCI지수 편출 전망 상대적인 외국인 지분율과 비통신 기관들의 실적 성장 감안 시 통신업종 내 KT가 가장 매력적 5G 통신장비 업체들의 1Q22 실적은 대부분 부진할 전망이나 6월 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관심 확대 예상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	9 스카이라이프, 이노션 1Q22 실적발표	10 SK텔레콤 1Q22 실적발표	11 CI ENM 1Q22 실적발표	12 KT 1Q22 실적발표	13 삼성전자 6G 포럼 LGU+ 1Q22 실적발표	14
15	16	17	18	19	20	21

3 주간 뉴스

▶ KT, C-ITS 전국 확산..."지능형 교통체계 주도"

(아이뉴스24)

- 울산 C-ITS 실증사업 준공. 국내 최초 'AI 영상분석' 보행자 안전 체계 마련
- KT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을 본격화
- 전국 실증 사업 수주와 솔루션 상품화도 추진
- ⇒ 올해 9월 국내 최초로 부천시에 'AI기반 신호최적화' 서비스 구축 예정
- ⇒ KT 자체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다수 개발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

▶ 삼성, 6G 글로벌 선점 가속 폐달 밟는다

(전자신문)

- 삼성전자는 제1회 '남성 6G 포럼'을 개최. 6G가 가져올 미래상을 공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논의
- 6G를 활용해 산업 전반 혁신을 이끌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도 확보하겠다는 의도
- 6G 주요 예상 대역으로 7~24GHz 상위 중대역과 92~300GHz의 서브테라헤르츠 대역을 꼽아
- ⇒ 6G에서는 네트워크가 인간 신경처럼 작동해 인간 신체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
- ⇒ 통신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AI와 같은 다른 기술들이 융합돼 혁신적인 6G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고 분석

▶ LGU+, UAM 뛰어든다…국토부 실증 참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데일리)

-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참여자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 K-UAM GC는 2025년까지 UAM 국내 상용화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
- ⇒ LGU+, 드론 솔루션 · 서비스 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과 협력해 교통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 · 연구할 계획
- ⇒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버티컬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로 협력해 혁신적인 UAM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 예정

▶ SKT, 개방형 로봇 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 인티그리트(INTEGRIT)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 상호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 공통된 표준에 따라 공간 및 위치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로봇 활용 용도 범위가 넓어져
- ⇒ 로봇 간 연결성 강화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
- ⇒ SK텔레콤과 인티그리트는 지능형 로봇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규격화할 예정

▶ "망 사용료 분담하라"…유럽 통신사도 글로벌 OTT '망 투자 갈등' 격화

(한국경제)

- 16일(현지시간)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 주최로 토론회 열릴 예정
- 넷플릭스 등 대형 OTT가 발생하는 막대한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가 떠안아 왔다는 점을 지적
- OTT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안할 계획
- ⇒ EU 집행위원회, 올해 연말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하도록 입법을 준비 중
- ⇒ 빅테크가 망 사용료 약 200억 유로 분담하면 EU 경제에 약 700억 유로의 파급 효과 유발할 것

▶ KT알파, 윗차 오리지널 콘텐츠 해외 유통

(아이뉴스24)

- 북미와 유럽, 대만, 동남아 등 글로벌 OTT에 윗차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확대한다고 밝혀
- 해외 유통 권리를 확보한 윗차 오리지널 콘텐츠는 '언프레임드', '더블 트리블' 등 총 9편
- '시맨틱 애리'는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Rakuten Viki)' 등 6개 채널 통해 약 85개국에 서비스
- ⇒ '시맨틱 애리' 외 나머지 작품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
- ⇒ 해외 OTT 사업자 대상으로 글로벌 배급을 강화,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 중심으로 유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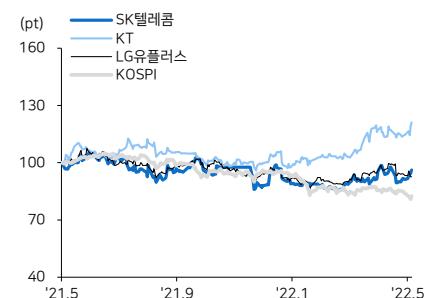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심의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61,000	10.4	13.6	14.1	1.3	1.4	0.8	1.0	4.3	4.4	4.3	4.2	8.6	9.4
	KT	37,550	7.7	20.0	20.7	1.4	1.5	0.9	1.0	4.3	4.4	3.3	3.2	7.8	8.3
	LG유플러스	13,700	4.7	11.2	11.6	0.8	0.9	0.6	0.6	2.8	2.9	3.5	3.4	9.4	9.8
미국	AT&T	19.8	142.0	127.9	123.2	24.3	25.4	18.5	18.3	42.4	43.3	7.8	7.6	11.9	11.1
	Verizon	48.2	202.3	136.6	139.2	32.5	33.9	22.3	23.3	49.3	51.1	7.2	7.0	25.2	22.8
	T-Mobile	126.3	158.4	81.3	83.4	8.5	13.5	3.3	7.6	27.3	29.5	8.5	7.9	4.4	11.9
일본	NTT	3,782	105.9	93.4	95.4	13.6	14.2	8.7	9.2	25.3	26.2	6.6	6.4	14.6	14.3
	KDDI	4,247	75.6	41.6	42.2	8.1	8.4	5.1	5.3	13.9	14.0	6.0	6.0	13.8	13.5
	Softbank	5,040	67.1	47.3	49.4	-1.4	7.2	4.4	6.4	4.4	11.7	49.0	18.5	4.7	5.3
중국	China Mobile	51.1	141.7	136.0	146.1	18.7	20.5	18.2	19.9	48.7	51.8	1.5	1.4	9.9	10.1
	China Unicom	3.7	14.5	51.5	54.3	1.9	2.3	2.4	2.7	14.8	15.4	0.6	0.6	4.8	5.2
	China Telecom	2.8	48.9	71.1	77.4	5.3	6.0	4.3	4.8	19.7	20.8	2.4	2.2	6.6	7.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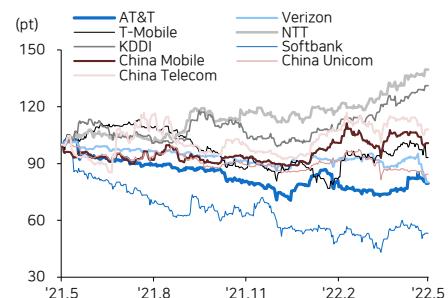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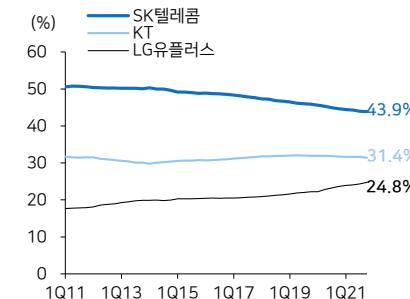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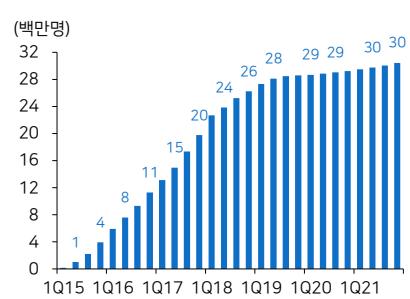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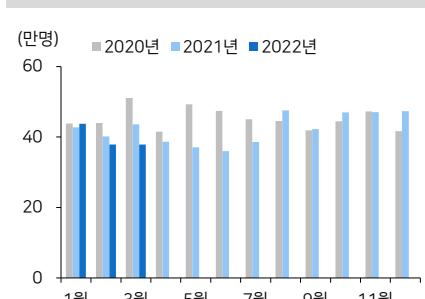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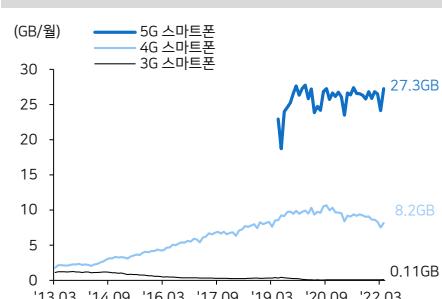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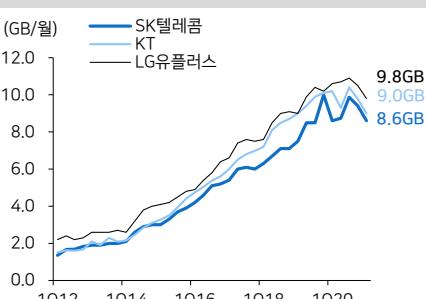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